# ‘신구조화에 투자 의지까지’…SSG 왕조시대 열린다

## 김강민·최정·추신수 등 베테랑 활약…오원석·최지훈 등 젊은 피도 제 몫

## 정용진 구단주 화끈한 지원 아래 선수들 더욱 힘내…새로운 왕조 시대 예고

8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KBO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SSG 선수들이 우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장 완벽한 우승을 일궈낸 SSG 랜더스가 ‘신세계’로의 초대를 예고했다.

SSG는 8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 KBO 한국시리즈(KS) 6차전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4-3으로 이겼다.

4승(2패)을 먼저 달성한 SSG는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지난해 SSG로 간판을 바꿔달고 처음으로 차지한 정상이다.

빛나는 신구조화로 탄탄한 저력을 드러냈다. KS 최고령 MVP에 오른 김강민은 벤치에서 기다리다 ‘대타’ 출격 명령만 떨어지면 존재감을 떨쳤다. 1차전 동점 홈런에 이어 5차전서 끝내기 스리런포를 폭발하며 노련한 ‘베테랑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김강민이 MVP 수상자로 예상했던 최정 역시 뜨거운 활약을 펼쳤다. 팀의 간판타자답게 이번 KS 6경기에서 타율 0.476(21타수 10안타) 2홈런 9타점을 쏟아내면서 키움 마운드를 두들겼다.

리드오프로 나선 추신수는 KS 6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때려내며 제 몫을 했다. 타율 0.320(25타수 8안타), 출루율 0.414로 공격 물꼬를 텄다.

에이스 김광현은 선발로 두 차례 나가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6차전서는 1점 차로 앞서고 있던 9회 1사 후엔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아웃 카운트 2개를 잡고 경기를 끝내기도 했다.

젊은 피들의 분전도 빛났다.

3차전 선발로 투입된 오원석은 데뷔 첫 포스트시즌 등판에서 5⅔이닝 1실점으로 인상적인 역투를 펼쳐보였다. 영건의 배짱투에 김원형 SSG 감독은 “오원석이 김광현에 다가서고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KBO리그 정상급 수비를 자랑하는 외야수 최지훈도 처음으로 밟은 KS 무대에서 한층 더 성장했다. 1차전서 다소 아쉬운 수비를 펼치곤 “자존심이 상했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더니 2차전서 홈런 하나를 포함해 3안타 2타점을 퍼붓는 등 시리즈 초반 기세 싸움에 힘을 보탰다.

SSG의 짜임새 있는 힘은 의심할 바가 없다. 개막전부터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긴 페넌트레이스를 마치더니, ‘최후의 무대’에서도 정상을 지켜낸 팀이다.

이미 KBO리그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팀인 SSG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 건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다. 최정은 “(정용진) 구단주님이 ‘이게 정말 프로야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 팀에 대한 자부심도 커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화끈한 지원 아래 선수들은 더욱 힘을 내고, 결과를 가져온다. 투자 의지도 강하다. 정용진 구단주는 KS 기간 중 ‘포수를 보강해달라’는 팬의 요청에 “기다려보세요”라는 답글을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전신 SK 와이번스 시절 SSG는 ‘왕조’라고 불리며 프로야구계를 호령했다. 김성근 감독과 함께 2007년과 2008년 통합 우승으로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더니 2010년에 다시 한 번 패권을 차지했다. 2010년대 중반 잠시 침체기를 겪던 SK는 2018년 트레이 힐만에게 한국시리즈를 정복한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라는 칭호를 선사했다.

이제는 또 다른 ‘왕조’가 시작될 조짐이다. SSG가 ‘신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뉴시스

# “좌타 이겨야 돈 벌죠” 17홀드 KIA 히트맨 이준영, 이제 우타도 사냥

## 2015년 대졸투수로 입단…2019년부터 1군 자리잡아

“좌타를 이겨야 돈을 번다”.

2015년 대졸투수로 입단해 2019년부터 1군에 자리잡았지만 필승맨은 아니었다. 2022시즌이 되자 꽃을 피웠다. 왼손 타자만 상대하지 않았다. 우타자들이 나와도 1이닝씩 던지는 어엿한 필승맨으로 올라섰다. 8월에는 필승조 3명(전상현, 장현식, 정해영)이 부상으로 빠지자 마무리 투수 노릇을 했다.

7~8월은 0점대 평균자책점을 자랑했다. 무적의 투수였다. 그러다 9~10월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최종성적은 75경기에 출전해 1승1패1세이브17홀드, 평균자책점 2.91를 기록했다. 실가동 5년째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좌완 이준영(30)은 KIA의 2022 히트상품이었고 5강의 동력이었다.

지난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이준영은 “전반기에는 뒤의 투수들이 좀 많이 도와주어 방어율도 좋았다. 후반기에는 상현, 현식, 해영이 빠지다보니 당연히 내가 던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집중도 많이 했고 기회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다. 9~10월이 안좋아 80점 주고 싶다”고 시즌을 자평했다.

좋아진 비결은 있었다. 자신감을 갖고 슬라이더를 강하게 던진 것이다. 그는 떨어지는 각도와 구속이 다른 슬라이더를 던진다. 슬라이더 구속은 127~128km(카운트용)에서 133~135km(결정구)까지 차이를 두었다. 낮게 볼로 던져 헛스윙을 유도하는 등 제구가 좋다. 평균 스피드도 141~142km, 최고 147km까지 직구도 빨라진 점도 통했다.

“기술적으로 변화를 준 것은 없다. 자신있게 던지니까 슬라이더의 스피드와 각이 확실히 좋아졌다. 그전에는 너무 소극적이었고 결과가 잘 안 나왔었다. 이제는 어차피 던져야 되니 자신 있게 하자는 생각이 컸다. 분석팀에서도 볼도 빨라지고, 회전수와 궤적이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서재응 투수 코치의 조언도 컸다. “그전에는 슬라이더로 스트라이크만 던지는 정도였다. 지금은 바뀌었다. 서재응 코치님이 스트라이크만 던지지 말고 바닥에 던지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다. 자꾸 스트라이크만 던지면 직구 타이밍에 맞았다. 강하게 낮게 던지면서 성적도 나왔다. 7~8월부터 자신감 생겼다”고 덧붙였다.

아쉬움은 9~10월의 부진이었다. 평균자책점이 9점이 넘었다. 잘 던지다가 한번에 무너지는 경기들이 나왔다. “못한 이유는 체력 문제도 있지만 욕심이 생겼다. 7~8월과 똑같이 했으면 됐는데 너무 좋았으니까 더 잘하려다보니 힘이 들어 갔고 과부하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보완점은 우타자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이다. 올해 좌타자 피안타율은 2할2푼2리, 우타자는 2할8푼3리로 높다. “좌타자는 누가 나와도 자신있다. 내가 좌타자를 이겨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이어 “우타자에게는 코스 설정과 제구가 확실해야 한다. 슬라이더를 더 보완하고 투심과 체인지업도 던져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숙제를 설정했다.

우타 사냥을 위한 비시즌 훈련계획도 세웠다. “순발력 운동과 힘을 키우는 웨이트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올해도 공을 좀 많이 던지고 시즌에 들어갔다. 야수들이 실내에서 방망이 칠때 배팅볼을 많이 던져주었다.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 내년에도 많이 던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팬들께서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았다. 식당을 가면 이준영이 아니냐고 물어보셨다. 기분이 좋았다. 내년에도 준비잘해서 안 다치고 또 풀 타임으로 올해처럼 경에  많이 나가고 싶다. 2점대 방어율과 20홀드가 목표이다. 팀을 위해 게임 많이 나가고 최대한 점수 안주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고 약속했다.

# KIA,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재계약

## 총액 110만달러…올 시즌 127경기서 타율 0.311 17홈런 77타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복덩이’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30)가 내년에도 KIA에서 뛴다.

KIA는 8일 “소크라테스와 계약금 30만달러, 연봉 50만달러, 옵션 30만달러 등 총액 110만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소크라테스의 연봉과 옵션은 지난해와 같다. 계약금은 지난해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가 올랐다.

올 시즌 KBO리그에 데뷔한 소크라테스는 127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1 17홈런 77타점 83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848을 기록했다.

견실한 중견수 수비와 함께 중심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팀 공격과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소크라테스는 “내년에도 KIA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이다. 최고의 팀 동료들과 함께 뛸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며 “KBO리그 최고인 타이거즈 팬들을 하루 빨리 보고 싶고,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비시즌 동안 잘 준비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슬비 기자

# 벤투호 골키퍼 김승규 “4년 전보다 마음이 편하다”

## 러시아월드컵 때 주전 밀렸던 김승규, 카타르에선 넘버1 다짐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둔 벤투호의 주전 골키퍼 김승규(알샤밥)가 4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승규는 8일 오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진행된 축구대표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4년 전엔 월드컵 준비하면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쫓기면서 조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월드컵을 준비할 땐 개인적으로나, 팀 적으로 컨디션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면서 쫓겼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A매치 통산 66경기(47실점)를 뛴 김승규는 파울루 벤투 감독 부임 후 주전으로 뛰고 있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등 유럽파를 포함한 최정예로 치른 지난 9월 코스타리카(2-2 무), 카메룬(1-0 승)과의 A매치 2연전도 모두 김승규가 골문을 지켰다.

부상 등 이변이 없는 한 카타르월드컵에서도 김승규가 골키퍼 장갑을 착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김승규는 “이전 월드컵에선 스스로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다. 이전 월드컵처럼 실수를 안 해야겠단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자는 4년 전 러시아월드컵 때 주전으로 활약한 조현우(울산)다.

김승규는 “(조)현우보단 발밑에 자신이 있다. 하지만 현우도 울산에서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 발밑이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뛰고 싶다고 경기에 나설 순 없다. 이전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누가 나가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다 같이 준비를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카타르와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에서 뛰는 김승규는 “중동이 덥다고 하는데, 카타르는 에어컨도 나오고 그렇게 덥지 않다. 날씨는 걱정 없다. 오히려 경기장 상태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벤투호는 11일 오후 8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아이슬란드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 뒤 14일 카타르월드컵에 나설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한다.

뉴시스

# “이견 없었다” 홍원기 감독, 키움과 3년 14억원 재계약

## 개막 전 최하위 평가 딛고 올해 한국시리즈 준우승 달성

키움 히어로즈의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이끈 홍원기(49) 감독이 3년 더 지휘봉을 잡는다.

키움은 9일 오전 구단 사무실에서 홍 감독과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 등 총액 14억원에 감독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2021시즌을 앞두고 사령탑에 오른 홍 감독은 부임 첫해 5위로 가을야구에 진출했다. 올해는 정규시즌 3위로 2년 연속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았다.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이탈로 개막 전 최하위 평가를 받았던 키움은 홍 감독의 지휘 아래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까지 살아남았다.

긴긴 가을을 소화하는 동안 홍 감독은 과감한 대타 투입과 허를 찌르는 투수 교체 등으로 단기전 승부사 기질을 드러냈다.

올해 키움은 SSG 랜더스에 밀려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그쳤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 투혼의 야구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뛰어난 리더십과 통솔력을 바탕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어려움 속에서 선수단을 하나로 뭉쳐 한국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홍원기 감독과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구단 내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재계약을 결정해 주신 구단에 감사하다. 항상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멋진 선수들과 내년에 더 높은 곳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